논어 3편 팔일 6장 · 원문·풀이

季氏旅於泰山。子謂冉有曰：「女弗能救與？」對曰：「不能。」子曰：「嗚呼！曾謂泰山不如林放乎？」

독음 · 계씨려어태산 자위염유왈 여불능구여 대왈 불능 자왈 오호 증위태산불여림방호

쉬운 풀이(요약) · 계씨의 태산 제사를 막지 못했다는 염유를 공자가 꾸짖었다. 태산의 신이 예를 묻는 임방만도 못하겠느냐는 뜻이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季 끝 계 계 / 氏 성 씨 씨 / 旅 군사 려 려 /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泰 클 태 태 / 山 뫼 산 산 / 子 아들 자 / 謂 고할 위 위

冉 가는 털 늘어질 염 염 / 有 있을 유 / 曰 가로 왈 / 女 계집 녀 여

弗 아닐 불 불 / 能 능할 능 능 / 救 구원할 구 구 / 與 너울너울할 여 여

對 마주볼 대 대 / 不 아닐 불 / 嗚 탄식할 오 오 / 呼 부를 호 호

曾 일찍 증 증 / 如 같을 여 여 / 林 수풀 림 림 / 放 놓을 방 방

乎 어조사 호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